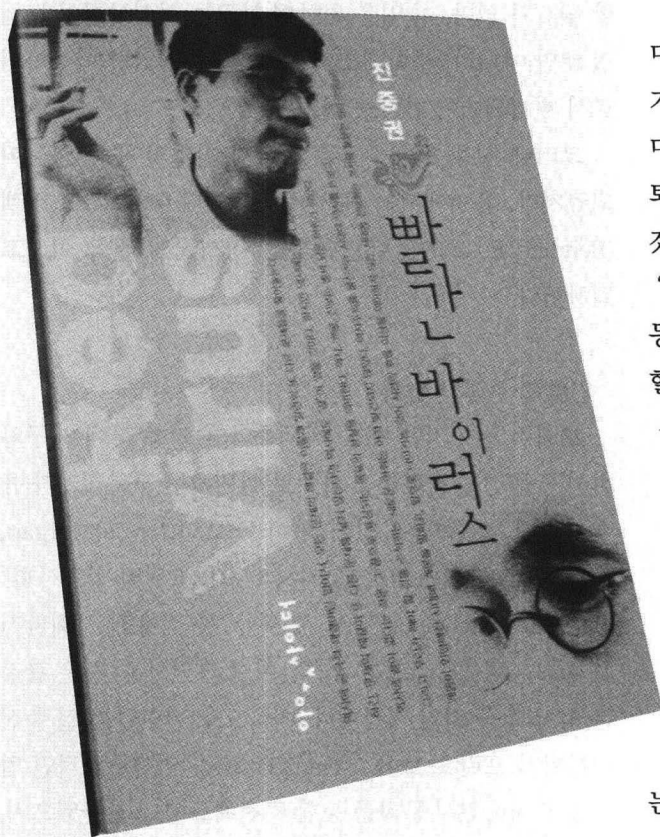


# 《빨간 바이러스》

면역과 감염, 빨리 달리기와 천천히 가기

글\_ 임동헌



《빨간 바이러스》진중권 지음 | 아웃사이드 | 352쪽 | 값 9,800원

우리는 달리는 데 익숙하다. 익숙할 뿐인가. 잘 달리면 미덕으로 치부하지만 잘 달리지 못하면 낙오자로 편입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달리는 것은 반드시 1백 미터, 5백 미터 경기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은퇴를 선언했던 정치인이 7.26 재 보궐 선거를 통해 컴백하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일종의 ‘달리기’에 속한다. 사람은 ‘달리면 목표에 빨리 다다를 수 있다’는 욕망에 지배당하는 동물 아닌가. 말하자면, 은퇴했던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다’며 컴백을 선언하는 행위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젓혀둔 채 자신의 욕망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정치인이 은퇴를 선언할 때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공표한다는 점이다. 사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 덕분에 숨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정치인에 탄축을 걸기는 가장 쉽고, 동시에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가장 비효과적인 것도 사실이다. 정치 집단은 웬만한 비판에는 끄덕도 안 하는, 훌륭한 면역 집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2년 전 이맘 때 독자들에게 다가갔던 한 권의 책이 떠오른다.

이름 하여 진중권의 《빨간 바이러스》다. 진중권이라는 이름에다 ‘빨간 바이러스’라는 제목이 결합되니 무슨 불운 문서 모음집 같지만, 이 책은 우리나라 정치판과 정치인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정점을 보여준다. 무엇이 정점인가 하면, 책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작금의 정치 현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년 전 진중권이 내린 진단 중에는 예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때 그는 ‘민주노동당도 안으로 쪼아가고 있다. 북한의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자본주의적 퇴폐로 부르며, 특히라면 중과 사건이나 일으키던 몰상식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당을 장악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자신이 몸담기도 했던 민노당에 대한 당시의 일침은 5.31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의 전멸'로 증명됐다.

'반수구연대' 세력을 향해 '수구개혁'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중권의 외침은 결국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중권이 주문했던 것은 '보수중도-진보'의 3자 구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수구연대'는 낡은 수사학이라는 주장도 곁들여졌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다.

'김대중과 함께 권력을 잡은 소위 개혁세력은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기득권 군히기에 들어갔다. 개혁의 레토릭을 구사하던 노무현은 권좌에 오르자 곧바로 보수성을 드러냈고, 개혁을 위해 다수당을 만들어 달라던 열린우리당 역시 총선이 끝나자 벌써 탄소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안티조선 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안티조선 운동은 성공했는지 모르나, 그것이 애초에 추구했던 목표는 더 멀어졌다. 안티조선은 잃어버린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비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빨간 바이러스》의 비판적 안목이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체적이 문명비평가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좁고, 역동성이 빈약하며, 송곳만 들이대면 언제든 구멍이 뚫릴 것처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허술함의 단서 중 하나가 6월 12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동이다. 그날 노무현 대통령은 8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근래 포털 사이트를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미디어가 된 것 같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나치게 일반론에 머물러 있다. 진중권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것은 합리적 논증이나 진지한 토론이 아니라, 쪽수 '의 물리량을 동원한 힘과 힘의 원초적인 부딪힘이다. 몇 번의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은 자율성을 잃고, 완벽하게 현실 정치에 종속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그 어떤 매체보다 더 역겨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현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진중권의 논리에 기댈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데 노 대통령은 '흔히들 언론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권력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말하자면 인터넷 문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나는 소통의 장에서 공정한 조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그러나 진중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인터넷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그 어떤 매체보다 더 역겨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어버렸다'이다. 노 대통령과 진중권의 2년 전 주장 중에서 어떤 논리가 더 객관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간단하다. 예컨대, 서울 시장 선거에 나왔던 오세훈과 강금실 후보에게 인터넷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명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진중권의 《빨간 바이러스》는 꽤 거친 표현을 감수하면서 이런 가치들의 충돌지점마다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이른바 '진중권 표' 가치관의 노정인데, 그의 가치관은 진보에 힘을 싣고 있으나 그렇다고 보수 진영을 향해서만 '다시 태어나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그의 눈으로 볼 때 한국 사회의 적은 '당파'로 묶여 있고, 그 '당파'는 진보, 보수 진영 모두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므로 진보 진영 역시 '다시 태어나야 할 집단'에 속할 뿐이다.

《빨간 바이러스》가 유익한 독서로 작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독자의 몫이지만 이 목록을 제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차례의 선거가 끝났지만 그 선거가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유도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큰 탓이다.

정치란 어차피 연속적인 선거에 의해 유지되는 법이거니와 선거를 피할 방법이 없다면 현명한 유권자가 되는 것이 차선책이다. 달리는 일에 몰입할 이유는 없다. 천천히 가더라도 일종의 감염을 각오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